

『처음 읽는 맹자』 독서 활동지

작성: 권성지(윙긴이)

표지 관찰하기

책의 표지를 살펴보세요. 『처음 읽는 맹자』에서는 주인공 맹자가 고양이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눈에 비친 ‘맹자냥’의 모습은 어떤가요? 표지에서 느껴지는 맹자의 인상에 대해 여러분의 느낌을 떠오르는 대로 적어 보세요. 표지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을 자유롭게 적어도 좋습니다.



예시) 눈에 힘을 준 것으로 보아 무언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

알아보기

맹자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책을 읽기 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아래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1. 맹자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을까요?

- ① 고구려
- ② 제나라
- ③ 추나라
- ④ 고조선

2. 맹자의 본명은 무엇일까요?

- ① 맹구
- ② 맹사성
- ③ 맹가
- ④ 맹수

3. 다음 중 맹자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 ① 공자를 잇는 성인이라는 뜻에서 ‘아성(亞聖)’이라고 불린다.
- ② 중국뿐 아니라 특히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 ③ 나라가 으뜸, 군주가 그 다음, 백성은 가장 가벼운 존재라고 여겼다.
- ④ 임금 노릇을 못하는 군주는 갈아치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받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유 없는 친절에는 공공이가 있는 법 (본문 12쪽)

맹자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나라 왕의 금을 거절한 일에 대해 맹자와 제자 진진이 나눈 대화는 『맹자』 「공손추」편에 실려 있습니다.

[기억하기]

1. 맹자가 주장한 ‘어진 정치’가 제위왕에게 환영받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2. 맹자가 송강왕이 다스리는 송나라를 떠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설 땅의 군주는 왜 맹자에게 금을 건넸나요?
4. 제위왕이 보내온 금만 맹자가 거절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생각하기]

1. 뇌물과 선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2.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거나 건넨 적이 있나요? 그 선물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나요?

◎ 송강왕의 고민: 잘못을 알면 즉시 고칠 것 (본문 24쪽)

이 장에서는 상대의 논리를 간파한 다음, 적절한 비유를 들어 설득하는 맹자의 화법이 재미있는 이야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억하기]

1. 송나라 사람이 제후국 사이에서 조롱거리가 된 역사적 까닭은 무엇인가요?
2. 송강왕이 맹자에게 털어놓은 고민은 무엇이었나요?
3. ‘맹자냥’이 송강왕에게 건넨 해법은 무엇이었나요?

“농민의 ()를 줄이고, 관문 ()와 장터의 ()을 없애면 됩니다. 그럼 문제는 봄벌레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4. 올해에는 세금을 가볍게 징수하고, 내년이 되어 완전히 없애자는 제안에 맹자가 화를 낸 까닭은 무엇인가요?

[생각하기]

1. 맹자는 백성들에게 거두는 세금을 줄여야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2. 스스로를 돌아켜봤을 때,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없나요? 잘못을 알면서도 곧바로 고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 맹자, 도적을 만난다!: 시련과 역경을 통해 단단해지기 (본문 36쪽)

이 장에는 시련을 성장의 기회로 삼았던 맹자의 생각을 가상의 이야기로 생생하게 엮었습니다.

[기억하기]

1. 송나라에서 노나라로 가던 맹자 일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 맹자가 제나라의 대우와 송나라의 후한 대접을 뿌리친 채 천하를 떠돈 까닭은 무엇인가요?
3. 순임금은 아버지, 계모, 동생의 괴롭힘을 어떤 식으로 이겨냈나요?

[생각하기]

1. 『맹자』 「고자」편에 실린 다음 글을 읽고, 맹자는 역경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하늘은 장차 큰일을 맡길 사람에게 마음이 어지럽고, 뼈와 근육이 힘들고, 살갓과 몸이 메마르고, 하는 일이 험사리 풀리지 않는 시련을 내린다. 그리하여 그 마음을 움직이고 인내심을 길러, 미처 갖지 못한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다. (...) 이를 통해 근심과 걱정에서 살고, 편안함과 즐거움에서 죽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겨 내기 어려운 시련이 있나요? 그 시련을 시련이 아닌 배움의 기회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시련을 겪고 난 후 자신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 마음을 얻는 자, 승리를 얻는다: 한마음으로 똥친 집단의 힘 (본문 48쪽)

이 장에서는 맹자가 어진 정치를 펼치고자 노력하는 등문공을 격려합니다. 이 이야기 역시 『맹자』에 실린 문답을 바탕으로 실감 나게 재구성되었습니다.

[기억하기]

1. 전국시대의 소국이었던 등나라가 마주한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2. 제나라와 초나라의 인구가 훨씬 많음에도, 맹자는 등나라가 전쟁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3. 다음 ‘등문공’의 대사를 완성해 봅시다.

하늘이 좌우하는 ()와 시기를 틈타기보다는 주어진 지형적 이점을 살리는 인간의 ()이 중요하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요!
--

[생각하기]

1. 맹자가 주장하는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생활 속에서 '인화(사람들의 화합과 하나 된 마음)'가 중요한 힘을 발휘했던 경험을 적어 보세요.
2. 맹자는 피비린내 나는 정복 전쟁이 한창이던 전국시대에 군주가 우선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것을 주장했습니다. 맹자의 말에 제후들이 좀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은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 오십보백보: 남의 잘못보다 자신의 잘못을 보기 (본문 60쪽)

‘오십보백보’란 오십 걸음 도망친 병사가 백 걸음을 도망친 병사를 비웃는다는 뜻으로, 『맹자』 「양혜왕」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기억하기]

1. 양혜왕이 맹자를 귀빈으로 대우하고 그의 가르침에 귀 기울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2. 양혜왕이 이재민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킬 정도로 구호에 힘썼는데도, 위나라 인구가 늘지 않은 까닭에 대해 맹자는 어떻게 답했나요?
3. '오십보백보' 이야기에서 오십 걸음 도망친 병사가 백 걸음 도망친 병사를 비웃는 것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각하기]

1. 맹자는 백성이 굶주리는 진짜 이유는 흉년 때문이 아니라 군주의 잘못된 정치와 무거운 세금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도자가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살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 제선왕의 꿈: 무식할수록 욕심이 많은 법 (본문 72쪽)

이 장에서 맹자는 무력으로 천하를 통일하려는 제선왕의 헛된 꿈을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잡는다'는 비유로 꼬집습니다. '연목구어'라는 사자성어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기억하기]

1. 무력을 통해 천하를 통일하려는 제선왕의 계획이 헛된 꿈이라고 맹자가 비판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2. 제선왕에게 '맹자냥'이 한 조언을 떠올리며 빈칸을 채워 봅시다.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 정치를 펴십시오! 흉년이든 풍년이든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따뜻이 입을 수 있도록 ()와 ()을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생각하기]

1. '연목구어(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함)'처럼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아 실패했던 경험이 있나요?
2.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선택해야 할지 적어 보세요.

나의 목적	목적을 실현할 수단(방법)
예) 친구들과 사이에서 믿음직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	예) 매일 매일 정직한 말과 행동을 하도록 노력한다.

◎ **난 구두쇠가 아니야: 마음을 넓혀 타인과 공감하기 (본문 84쪽)**

이 장에서 맹자는 군주가 지닌 동정심을 백성들에게 넓힐 것을 주장합니다. 남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은 맹자가 생각한 도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기억하기]

1. 제선왕이 구두쇠라는 소문이 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제선왕이 제사에 쓰일 소를 풀어 준 까닭은 무엇인가요?
3. 맹자가 생각한 훌륭한 군주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며 빈칸을 채워 봅시다.

“대왕께서는 그 어진 마음으로 소뿐 아니라 백성 전체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지요. 자기 ()를 공경하듯 남의 ()를 공경하고, 자기 ()을 사랑하듯 남의 ()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

[생각하기]

1. 여러분은 다른 존재의 아픔에 공감한 적이 있나요? 어떤 상황을 보고 동정심이 들었나요?
2. 맹자는 인간이 다른 존재의 아픔을 똑같이 느낄 수 있기에 선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선한 존재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맹자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넓혀 남의 자식도 사랑해야 한다”며 선한 마음을 넓혀 가는 것(추기급인)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가진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주변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어떻게 실천하고 넓혀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 **나만의 즐거움 vs. 함께하는 즐거움: 즐거움은 곱하기, 슬픔은 나누기 (본문 96쪽)**

이 장에서는 군주가 개인의 오락만 추구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짚으며,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여민동락'의 가치를 배웁니다.

[기억하기]

1. 제선왕이 음악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장포는 어떤 걱정을 했나요?
2. 제선왕이 궁궐에서 악사를 동원해 화려한 음악을 연주하며 홀로 즐길 때, 궁궐 밖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만을 터뜨린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생각하기]

1. 나만 즐거운 일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혜택이나 즐거움을 나누었을 때 기쁨이 더 커졌던 경험을 적어 보세요.
2. 혼자 이익을 누릴 때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 때 기분이 더 좋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을 이겨 내고 내딛는 발걸음 (본문 108쪽)

이 장에서는 제자 공손추가 이야기꾼으로 변장해 맹자의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들려준다는 재미있는 설정이 나옵니다. 공손추는 맹자가 말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기억하기]

1. 제나라의 수도 임치성에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초청되었던 장소는 어디인가요?
2. 본문을 읽고 다음 표를 채워 보세요.

이름	직업/신분	용기에 대한 생각
	자객	자신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주눅들지 않고 ()을 가하는 것. 무서워하지 않는 것.
맹시사		
증자	()의 제자	자신의 언행과 생각을 돌이켜 보아 ()이 없이 떳떳한 것.

[생각하기]

1. 맹자는 올바른 행동을 쌓은 결과, 한 치 부끄러움도 없이 당당한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정직하게 행동했을 때 떳떳한 기분이 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2. 여러분이 생각하는 용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주위에서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 진정한 성장이란: 급히 먹은 밥은 체하는 법(본문 120쪽)

이 장에서는 '알묘조장'이라는 성어를 통해 자연스러운 순리와 착실한 노력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기억하기]

1. 맹자가 주장한 용기로, '크고 넓게 뻗친 기운'이라는 뜻의 이 단어는 무엇인가요? (4글자)
2. 자기 논의 벼가 잘 자라지 않는 것을 본 '송냥이'는 어떤 행동을 했나요?
3. '송냥이'의 논에 자라던 벼가 모두 시들어 버린 까닭은 무엇인가요?
4. '알묘조장'이란 어떤 태도를 비판하는 사자성어인지 적어 보세요.

[생각하기]

1. 인내와 노력을 거치지 않고 조바심을 내다 일을 그르친 적이 있나요?
2. 이 이야기를 통해 맹자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착실히 기를 것을 권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도덕심을 기르기 위해 일상에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착한 일 하나를 정해 봅시다.

◎ 제선왕, 연나라 정벌에 나서다: 백성이 으뜸, 나라는 그 다음, 군주는 그 아래 (본문 130쪽)

이 장에서는 연나라 정벌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 '민본주의'라는 맹자의 핵심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기]

1. 제나라 군대는 어떤 명목으로 연나라를 공격했나요?
2. 제나라 군대가 연나라를 정벌했을 때 처음에는 연나라 백성들이 환영했지만, 나중에는 원성을 높이며 반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맹자는 백성의 원성을 가라앉히기 위해 제선왕에게 어떤 조언을 했나요?
4. 맹자의 조언을 듣지 않은 결과, 제나라 군대는 어떻게 되었나요?

[생각하기]

1. 맹자는 백성이 으뜸이고 임금은 가장 가벼운 존재라며 민본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은 맹자의 사상이 지금도 여전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 하나요?

◎ **반성하는 태도: 가장 큰 잘못은 반성을 모르는 것(본문 142쪽)**

이 장에서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를 대하는 군자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억하기]

1. 연나라 정벌에 실패하고 궁지에 몰린 제선왕이 맹자를 만나기 부끄러워하여 피하려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성인으로 추앙받는 주공은 어떤 실수를 저질렀나요?
3. 진가가 맹자 앞에서 주공이 실수를 저지른 사실을 언급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4. 주공과 제선왕이 자신의 잘못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생각하기]

1. 특히 정치가에게 자신의 잘못을 곧바로 고치는 태도가 중요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2. 여러분은 자신의 잘못을 알면 곧바로 고치는 편인가요?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숨기는 편은 아닌가요? 잘못을 숨기는 것보다 곧바로 고치는 것이 왜 바람직한 태도인지 적어 봅시다.

◎ **맹자, 떠나기를 결심하다: 목숨보다 중요한 것들 (본문 154쪽)**

이 장에서는 유혹에 굴하지 않고 굳건한 신념을 지키는 맹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기]

1. 맹자는 왜 제나라를 떠나기로 결심했나요?
2. 제선왕은 떠나려는 맹자를 붙잡고자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었는지 본문을 참고하여 적어 보세요.
3. 맹자가 높은 녹봉을 제공하겠다는 순우곤의 제안을 거절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4. 맹자는 생선과 곰 발바닥 중 하나를 고르듯, 목숨과 '이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기꺼이 목숨을 버리고 '이것'을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맹자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이것)는 무엇인가요?

[생각하기]

1. 나에게도 부귀영화나 눈앞의 이익보다 더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신념'이나 '가치관'이 있나요? 진지하게 고민하며 적어 봅시다.

◎ **농사짓지 않으면 나쁜 임금?: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최선을 (본문 164쪽)**

이 장에서는 맹자가 분업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허행의 주장을 논박하는 대복이 재미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기억하기]

1. 농가 사상이 허행의 제자 진상은 임금도 백성들과 똑같이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2. 맹자는 허행 일파의 주장을 어떤 까닭을 들어 비판했나요?
3. 천하의 문제로 고민하던 요임금은 순임금을 등용합니다. 순임금은 어떤 방식으로 천하의 문제를 해결했나요?

[생각하기]

1.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협력할 때 우리 삶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주변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세요.
2. 차이가 없이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보수를 받는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 대장부란 누구인가: 고난에도 꺾이지 않고,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본문 176쪽)

이 장에서는 참된 용기와 의로움을 갖춘 인격자, ‘대장부’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합니다.

[기억하기]

1. 경춘이 종횡가로 분류되는 인물인 장의와 공손연을 칭송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2. 맹자는 장의와 공손연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했나요?
3. 대장부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며 아래 ‘맹자냥’의 대사를 완성해 봅시다.

“마음이 넓고 ()을 지키며,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니! 그런 사람은 순조로이 일이 풀릴 때는 천하 ()과 함께 옳은 길을 걸어간단다. 세상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자신의 길을 홀로 꿋꿋이 걸어가지. ()에 현혹되지 않고 ()에 흔들리지 않으며, 강대한 힘 앞에서도 무릎 꿇는 법이 없지. 그것이 바로 뜻과 능력을 키운 대장부란다!”

[생각하기]

1.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는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 떳떳한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왜 그런가요?
2. 여러분이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 즉 ‘군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 배우는 자의 자세: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기 (본문 188쪽)

『맹자』에는 바둑을 잘 두는 고수 ‘혁추’의 이야기를 들어 배우는 자가 갖춰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설명한 대목이 나옵니다.

[기억하기]

1. 오냥이와 월냥이가 똑같은 스승에게 바둑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크게 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뒷산에 있는 정자에서 바둑 대결을 펼칠 때, 월냥이는 어떤 생각에 빠져있었나요?

[생각하기]

1. 무언가를 배울 때 온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2. 최근에 가장 몰입해서 배웠거나 즐거움을 느낀 일이 있나요?
3. 여러분이 공부에 임하는 자세는 어떤지 스스로 되돌아봅시다. 집중력을 기르고 온 정신을 하나에 모으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억하기] 정답

2쪽

1. ③
2. ③
3. ③

3쪽

1. 군사에 관심이 많았던 제위왕은 군사 전문가 전기와 손빈을 가장 아꼈기 때문
2.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느라 송강왕이 맹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
3. 자신이 다스리는 땅에서 도적을 만났기 때문
4. 어떠한 진심도 담겨있지 않은 뇌물이었기 때문

4쪽

1. 송나라는 멸망한 상나라의 후예이기 때문
2. 송나라가 제후국들 사이에서 무시당하는 것
3. 토지세/통행료/세금
4. 잘못을 알고도 곧바로 고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

5쪽

1. 도적을 만나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빼앗김.
2. 어진 군주를 만나 자신의 이상을 펼치기 위해서
3. 상냥한 태도와 예의로서 대하며 품성을 단련하였다.

6쪽

1.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끼어 시달리는 것
2. 등나라가 준비한 해자와 성벽이 있고, 나라는 부유하며,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군대를 도우려 나설 것이기 때문.
3. 날씨/노력/마음

7쪽

1. 지난날의 패배를 설욕하고 천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2. 자그마한 호의를 베푸는 것일 뿐이기 때문
3.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자신이 상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점 등

8쪽

1. 천하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무모한 일이기 때문
2. 어진/토지/재산

9쪽

1. 제사에 쓰이는 소를 양으로 바꾸었기 때문
2. 사지로 끌려가는 소가 벌벌 떠는 모습이 애처로웠기 때문
3. 부모/부모/자식/자식

10쪽

1. 임금이 오락에 빠져 나랏일을 소홀히 할까봐 걱정함.
2. 자신들이 고생하는 것은 몰라주고 혼자 즐거워하기 때문

11쪽

1. 직하학궁
- 2

이름	직업/신분	용기에 대한 생각
복궁유	자객	자신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주눅들지 않고 (반격)을 가하는 것. 무서워하지 않는 것.
맹시사	장수	이기든 지든 일단 붙는 것
증자	(공자)의 제자	자신의 언행과 생각을 돌이켜 보아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한 것.

12쪽

1. 호연지기
2. 벼를 한 움큼씩 잡아 위로 당겨 주었다.
3. 자연스러운 성장을 기다리지 않고 인위적으로 잡아당겼기 때문
4.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지 않고 조바심을 내며 순리를 거스르는 태도 등

13쪽

1. 연나라의 내란을 평정한다는 명목
2. 연나라에 머무르며 백성들을 괴롭히고 약탈했기 때문
3. 군대를 물리고 빼앗은 재물과 포로를 반환하라고 요구함
4. 연합군의 반격을 받아 패배함

14쪽

1. 맹자의 조언을 듣지 않았기 때문
2. 관숙과 채숙이 난을 일으킬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3. 성인인 주공도 실수를 저질렀듯, 군주인 제선왕도 잘못할 수 있다고 변호하기 위해
4. 주공은 자신의 실수를 곧바로 고쳤지만, 제선왕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합리화하려고 하였다.

15쪽

1. 제선왕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았기 때문
2. 맹자를 위한 학교를 세우고 녹봉을 높여줄 것
3. 자신의 꿈은 녹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진 임금을 만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
4. 이상(또는 의로움)

16쪽

1. 모두가 똑같이 자신의 노동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
2. 허행 역시도 자신의 힘으로 모든 도구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함
3. 각 분야에 능한 신하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다 하도록 지시함. 분업을 통해 일을 함 등

17쪽

1. 천하 백성과 제후들이 두려워하기 때문
2. 교활한 술수를 부리고 권력자에게 아첨한다고 생각
3. 원칙/백성/부귀/가난

18쪽

1. 배우는 자세가 달랐기 때문
2. 날아가는 고니를 사냥할 생각에 빠져있었음